

도심 하천 건강하게 탈바꿈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 박차



지난해 1급수로 복원된 순천 동천.

순천시가 도심하천을 건강한 생태환경으로 탈바꿈시키며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기틀을 완성하고 있다.

순천시는 오염이 심해 시민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동천을 1급수로 복원한데 이어 해룡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해룡천 수질개선 사업이 환경부 주관의 오염하천 통합·집중 개선 대상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400억원 중 258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돼 순천만 유입수 수질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만 유입수 수질개선 사업=순천시는 도심을 흐르는 동천이 1급수로 복원되면서 생태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지천이 완벽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룡천 수질개선을 민선 6기 시정핵심 비전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연향 3지구와 순천만정원 사이의 도심을 흐르는 해룡천 수질이 상류지역 생활하수 유입과 하천수 부족으로 수질이 악화돼 악취가 발생하는 등 생태수도 순천 완성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시는 해룡천 수질개선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나 국회의원과 협력 등 지속적인 노력한 결과 2016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25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생태하천복원 등 다양한 개선 수단을 4년 동안 단기간에 총사업비 4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체계적인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상류지역 신도시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 210억원 ▲하천폭 확장 등 생태복원사업 108억원 ▲하천유지용수 확보(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사업 82억원이다. 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현재 1급수인 동천의 수질과 같은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2.0 이하인 하천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번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 선정은 260억원의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천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와 폐

동천 지난해 1급수 복원 생태문화 테마거리 추진 국비 258억원 지원받아 해룡천 수질 개선 나서



동천에 조성된 인공폭포.

수를 정비하게 되는 것으로 '생태수도 순천' 완성이라는 의미가 크다.

순천은 순천을 상징해온 옛줄로 시민들의 힐링(치유)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당시만 해도 쓰레기 투기와 하천 범람에 따른 각종 부유물질 퇴적 등으로 인해 오염된 동천을 시민들은 외면해 버렸다.

이에 따라 시는 '동천을 살리지 않으면 도시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동천을 깨끗하게 되살려 휴식의 장소로 돌려주고자 했다. 쓰레기를 치우고 오물을 차단하며 오·폐수관을 정비하면서 1급수 동천을甞했다.

동천의 회복 속도는 빨랐다. 시민과 더불어 동천 정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침, 저녁으로 동천변을 걷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후 동천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건강 산책코스가 됐다.

깨끗한 동천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청소년위원회가 벽화 그리기 운동을 펼쳤다. 시가 산책로를 순천만까지 연결하고,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연계해 순천만을 보호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도심으로 끌

어들이는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7년 BOD 18.7mg/L이었던 동천이 지난해 1.8mg/L로 1급수를 회복했다.

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천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 관리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올해 ▲순천 자전거 도로정비 ▲산책로 주변 버드나무 심기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순천시는 동천 수변공간에서 풍덕보까지 콘크리트 구조물인 강변로 교각과 옹벽에 각종 예술작품이나 그림전시,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 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천을 생태문화 테마거리로 변화시켜 도시재생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은 올해 시범 구간으로 400m를 추진하고, 내년에 1.5km를 대상으로 국비 15억원을 포함 30억원을 투자해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선진벽화마을 벤치마킹과 시민단체, 예술인 협회 등 자문을 거쳐 제안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동천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으로 사람과 도시, 자연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공간 창출과 원도심으로 방문객을 유도하는 등 머무르는 관광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순천만 수질을 보전하고 순천만 정원을 연결하는 생태 전수공간으로 동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또 옥천, 석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조종훈 시장은 "동천의 변화는 곧 '생태수도 순천'의 변화"라며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이 동천을 따라 원도심으로 유입되는 1석2조의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박선천기자 ejkim@

순천대 개교 80주년 기념주간 12~14일 다양한 행사

순천대학교(총장 송영무)가 12~14일을 '개교 8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순천대는 14일 오전 10시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갖고 ▲80년 이어온 한 길 ▲세계를 향한 큰 길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 등 3개 주제로 나눠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개교 이래 80년 역사를 이어온 순천대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80년 이어온 한 길' 주제 행사는 개교 80년사 발간, 릴레이 허그 행사, 순천대 역사관 개관식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를 향한 큰 길' 주제 행사로는 광개토태왕비 탁본 특별전시회, 나의 버킷리스트 작성, 인도 문화체험 및 인도 도영와 특별전, 세계 음식축제, 국제 학술대회, 대학정문 개축 등이 진행된다.

14일부터 6월 5일까지 국제문화 컨벤션관 범민홀에서 열리는 특별전에는 동문인 유희동 범우사 대표가 소장하고 있던 광개토태왕비 탁본 4점을 선보인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비문을 훼손



손하기 이전의 초기 탁본으로 추정돼 특별한 가치가 있다. 이어 13일 오후 3시 교내 학생회관 문화강당에서 김진명 작가를 초청해 '고구려 역사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민족정신과 시대정신, 그리고 꿈'이라는 주제 강연회를 연다.

특히 세계 음식축제는 순천대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다문화 가정주부 등을 초청해 대만, 러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10개국 음식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또한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 주제 행사로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국악 한

마당, 학생활동 및 산·학협력 성과물 전시회, 전자정보 박람회 및 테마도시 시 교내 학생회관 문화강당에서 김진명 작가를 초청해 '고구려 역사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민족정신과 시대정신, 그리고 꿈'이라는 주제 강연회를 연다.

한편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은 순천대학교는 1935년 5월 15일 순천 공립농업학교로 개교해 농림중학교(1946)→농림고등학교(1951)→농림고등전문학교(1965)→농림전문학교(1973)→농업전문대학(1979)을 거쳐 1982년 국립순천대학교로 승격, 남해안권 선도 대학으로서 위치를 다지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 2020년까지 전력 에너지 자립도 10%로 올린다

에너지 자립도시 기본계획 선포

'에너지 자립도시'(광주일보 3월 18일 11면)를 선언한 순천시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포했다.

순천시는 지난 9일 향동 문화의 거리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선정 1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에너지 기본계획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순천 시민들은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전력 에너지 자립률 10%를 목표로 연차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5대 실천 분야로 에너지 생산, 에너지 교육,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복지, 에너지 생태 관광을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간다.

주요 내용은 순천만정원을 대한민국 최초 에너지 자립 첨단 산업단지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조성할 면·동 20개소에 조성한다.



순천시민 대표들이 지난 9일 향동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에너지 기본계획 선포식'에서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에너지 효율형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녹색에너지 교육체험센터 건립,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아홉동 도시첨단 산업단지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조성할 면·동 20개소에 조성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경찰, 해룡면 당두마을 방범 CCTV 개통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최근 순천시 해룡면 당두마을 회관 앞에서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방범 CCTV 개통식을 가졌다.

순천경찰은 지난해부터 방범용 CCTV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출향 인사와 마을 공동기금을 활용한 '우리마을

앞으로 승주읍에도 64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삼동 서장은 "내고향 CCTV 달아주기 운동"과 "적외선 경보기 설치" 등 지역의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JTB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 - 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론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텔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